

박지윤-조수용 카카오대표, 지난 3월 결혼

(‘성인식’으로 인기 모았던 가수)

친지·지인들만 초대해 깜짝 결혼식
월간지 팟캐스트 인연으로 사랑 싹터



3월 비밀리에 결혼한 가수 박지윤(왼쪽)과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성인식’ 등 노래로 큰 인기를 모았던 가수 박지윤(37)과 조수용(45) 카카오 공동대표가 3월 결혼한 사실이 22일 뒤늦게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날 “박지윤과 조수용 대표가 지난달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조수용 대표의 개인사여서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조 대표가 2010년 창간해 발행한 월간지 ‘매거진 B’의 팟캐스트 ‘B캐스트’에 2017년부터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조 대표도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전공분야인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사랑을 쌓았고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2017년 5월 열애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했다. 박지윤 측은 당시 “함께 일하며 친분을 나누고 있지만 연인관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지윤은 1993년 잡지 모델로 데뷔한 뒤 1997년 ‘하늘색 꿈’으로 가수로 나섰다. 이

후 ‘가버려’, ‘성인식’, ‘난 남자야’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후 한동안 무대를 떠났던 그는 2009년 돌아와 앨범을 내기도 했다. 박지윤의 남편 조수용 대표는 2003년 네이버 검색창을 초록창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 서울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그는 네이버에서 퇴사해 2010년 이후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회사와 음식점 등을 운영했다. 디자인과 마케팅 전문가로서 카카오 브랜드 디자인총괄 부사장과 공동브랜드센터 센터장을 거쳐 지난해 3월 여민수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에 선임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현장.jpg

도발적인 트와이스 ‘팬시 유’ 쇼케이스

‘성숙’ ‘도발’ 그리고 ‘강렬’. 걸그룹 트와이스가 7번째 미니앨범 ‘팬시 유(FANCY YOU)’로 돌아왔다. 22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 트와이스는 “성숙해진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해시태그 킷



소유 “맛있으면 0kcal”

가수 소유의 포스가 귀여움을 자극한다. 대기실에 가득한 음식 가운데 어떤 걸 고를지 집계를 들고 망설이고 있다. 고민 끝에 메뉴를 결정했는지 시선이 한 방향에 쫓겨 있다. 과감한 의상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깨를 훤히 드러낸 오피 솔더 스타일의 크롭티를 입었다. 식사를 앞두고 크롭티를 소화하는 당당함. 팬들은 “먹어도 배 안나와요?” “자신감이 보기 좋다” 등 부러운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소유 #과감패션 #뭉클먹기

김희철, 솔로앨범 낸다

24일 록 발라드 ‘옛날 사람’ 발표
내달 초엔 ‘김희철 토크쇼’도 선봬



김희철

그를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새로운 도전 무대는 솔로가수다. 뛰어난 입담을 자랑하며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섭렵하고 슈퍼주니어뿐만 아니라 유닛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여온 그가 이번엔 솔로가수로 나서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기세다. 김희철은 24일 디지털 싱글곡 ‘옛날 사람’을 발표한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솔로곡을 발표하는 것은 2005년 데뷔 이후 처음이다. 그를 슈퍼주니어로 활동하며 ‘한류 제왕돌’로 불릴 만큼 인기를 모은 그는 이번 솔로 곡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한다. ‘옛날 사람’은 김희철이 직접 작사하고 슈퍼주니어 멤버 동해가 작곡한 정통 록 발라드 곡이다. 강원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동안 모든 방송을 꺾으며 해박한 연예지식을 자랑한 그는 팬들에게 ‘옛날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노래는 이런 경험을 모티브 삼아 이야기를 풀어냈다. 앞서 버즈의 보컬 민경훈과 함께 발표한 프로젝트 듀엣곡 ‘나비잠’과 ‘후유증’을 발표하며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은 만큼 ‘김희철표 록발라드’의 감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악프로그램 등 방송 출연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 슈퍼주니어가 새 앨범을 발표했을 때에도 앨범에는 참여했지만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이유로 무대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방송보다는 노래로 팬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의지에 따라 방송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애칭 ‘우주대스타’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토크쇼 형태로 팬들과 만난다. 5월 4일과 5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우주대스타 김희철 토크쇼-희토크’를 연다. 신곡 제목처럼 김희철의 옛날 이야기를 비롯해 추억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정연 기자

화제의 연출자 2인

김태호 PD, 상반기 내 새 프로그램

‘무도’ 종영 1주년...복귀작 관심

MBC ‘무한도전’의 연출자 김태호 PD가 조만간 차기작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다양한 아이템을 두고 고심해온 그의 복귀에 방송사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작년 3월 종영한 ‘무한도전’을 끝으로 1년 여 공백을 가진 김태호 PD는 최근 새 프로그램 준비에 한창이다. 앞서 2월 MBC 연간 광고 선 판매 설명회에서 “새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그는 후배 연출자인 채현서·현정완 PD를 앞세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있다. 22일 MBC 예능국 한 관계자는 “김 PD가 다양한 소재를 프로그램화하는 과정 중이다”면서 “상반기 중 새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



김태호 PD

계자도 “팀 내에서 다양한 아이템이 언급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에 MBC 내부의 기대는 커져가고 있다. ‘나 혼자 산다’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킬러 콘텐츠가 없는 탓이다. 김 PD가 다소 주춤한 MBC 예능프로그램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김태호 PD의 고심은 더욱 커져간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처음 나서서 만큼 연출 방향의 변화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MBC 예능국 한 관계자는 “김 PD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후배 PD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적도의 남자’ 김용수 PD 4년 만의 컴백

OCN ‘달리는 조사관’ 연출

드라마 ‘칼과 꽃’ 등으로 유명한 연출자 김용수 PD가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온다. 김용수 PD는 10월 방송 예정인 OCN 수목드라마 ‘달리는 조사관’을 통해 2015년 ‘복면검사’ 이후 4년 만에 현장 복귀한다. 2017년 KBS 퇴사 이후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아 궁금증을 키웠던 만큼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의 반가움이 크다. 김 PD는 열혈 팬을 지닌 몇 안 되는 연출자로 손에 꼽힌다. 2012년 ‘적도의 남자’에서 엄태웅의 ‘동공연기’를 탄생시키며 마니아 팬을 형성한 이후 ‘칼과 꽃’ ‘아이언맨’ ‘복면검사’ ‘베이비시터’ 등을 통해 색깔이 확실한 연출 스타일로 방송사 안팎의 신뢰를 받았다. ‘적도의 남자’ ‘칼과 꽃’ ‘아이언맨’ 등에서 하늘을 뒤덮은 노을, 물방울의 파



김용수 PD

동, 흠날리는 꽃잎 등 장면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연결시키는 연출 기법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다. ‘베이비시터’에서는 다양한 프레임 구도와 분할 등 새로운 시도로 시각적 즐거움을 안겼다. 김용수 PD가 4년 만에 돌아오는 ‘달리는 조사관’은 가상의 기관인 인권증진 위원회를 무대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조사관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요원과 최귀화가 출연한다. 앞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야기를 전해온 만큼 김 PD가 드러낼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가 높다. 백숨미 기자 bsm@donga.com

“그게 말이죠...” 시사 프로 MC 연예인들의 속앓이

‘...페이크’ 김지훈 호평·비난 한몸에
‘그알’ 김상중 이미지 고착화 고민도

최근 연기자 김지훈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들의 활약으로 시사프로그램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한편으로는 연예인들은 이미지 고착 등 부담이 커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훈은 8일부터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을 되짚고 그 사실 여부를 가리는 시사프로그램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청자와 화상 토론을 하는 듯 정보를 전달하는 김지훈의 진행 방식이 신선하다는 호평을 안겼다. 그보다 앞서 김의성은 MBC ‘스트레이트’, 김제동은 KBS 2TV ‘오늘밤 김제동’을 각각 1년 2개월, 7개월간 진행해오고 있다. 두 프로그램 각 방송사의 주요 프로그

램으로 안착했다. 이는 시사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려울 것이라 시청자 편견을 깨고,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김재영 PD는 김지훈의 섭외 이유에 대해 “가짜 뉴스를 찾는 콘텐츠를 친근하게 보여주기 위해 시청자 시선에 낮은 인물을 찾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평일 밤 11시대에 편성됐음에도 3%대(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연예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프로그

램을 향한 비난이 모두 이들에게 쏟아지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특성상 서로 의견이 다른 시청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다. 제작진이 다루는 내용에 대한 비난이 오로지 진행자인 김지훈에게 향하는 양상이 그렇다. ‘이미지 고착’ 문제도 숙제다. SBS 대표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11년째 진행 중인 연기자 김상중은 MBC 수목드라마 ‘더 벡커’의 주연으로 나섰지만 시청자들로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미지와 너무 겹쳐 몰입에 방해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